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發行所 京城府水標町四三番地 朝鮮日報社
發行兼編輯人 印刷人 金東成

社說 普選實施와 無產政黨의 出現?

一

오래동안 日本政界의 懸案이 되야잇든 普通選擧案은 지난 十二日 閣議에서 決定되엿다 한다 아즉 同案의 內容의 如何에 對하야는 論評할 時期가 아님으로 論及치 안커니와 이 普選案의 實施가 不遠한 將來에 現實化할것을 預期하고 이러나는 政治界의 新現象이 잇다 그는 無產階級의 政黨組織準備이며 婦人參政運動의 具體化이며 또한 農民黨의 出現前提인 農民組合의 全國的 結束等이라 할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한 傾向에 不過한者이나 將次 如何한 程度의 展開를 보게될는지 疑問이나 이것을 預히 檢討하여 보는것도 無端한 일이 아닐가한다 적어도 日本의 無產政黨出現은 吾人의 깁흔 興味를 惹起하는 者임으로써 이다

二

階級對立의 社會에 잇서 階級的 鬪爭은 免치 못할 現象이다 그리고 階級的鬪爭이 잇는 社會에서는 그 鬪爭의 舞臺가 政治的 舞臺로 向하지 아니할수업는 것은 必然한 理勢이다 政治는 元來가 力의 支配를 本色으로하는 者임으로 政治的鬪爭이라는 것은 곳 權力의 鬪爭을 意味하게 된다 즉 國家機關의 權力을 中心으로하고 演出되는 것이 階級鬪爭의 現實化、大衆化하는 政治的運動이라할것이다

엇지 그러냐하면 맑쓰의 말과가티 國家機關은 階級對立의 社會에 잇서 한 階級的 防禦組織인 外닭이다 그럼으로 一切의 社會關係가 政治機關을 떠나서 存立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斷言할수 잇다 이러한 關係를 알게된 今日에 無產階級의 運動이 政治化하지 아니하면 안될것은 多論을 不俟할바 이아니다

三

日本의 從來의 選擧法에 依한 衆議院은 日本全民衆의 代議院이라고 看做하기 어려운것이 엇다 納稅資格과 및 住所要件等의 障碍로 말미아마 全日本人口의 二十分一이 未滿되는 約三百萬의 有權者에 依하야 選出되는 幾百名의 代議士로서 成立된것이 아닌가 따러서 多數한 民衆은 自己의 福利가 左右되고 運命의 休戚에 直接關係가 잇는 政治社會에 容喙할 機會와 權利를 가지지 못하게 된것이 事實이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立案된 普通選擧案이 實施된다 하면 아즉 不備된 點도 不無하나 如何튼 政治的 權利가 普遍化될것은 勿論이다 그럼으로 오래동안 政治社會에서 驅逐을 當하엿든 多數의 無產大衆이 이 機會에 投合하야 自己의 權利를 主張하고 利益을 期圖하라는 것은 當然한 行動이라 아니할수 업는것이다

四

現下 世界의 엇던 나라를 勿論하고 政治 그것이 漸漸 民主化하여 가는 途程에 잇는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民主化라는 이 現象을 그대로 皮相的 觀察로써 滿足할바이 아니다 元來 政治的 努力이 經濟關係를 機軸으로 하고 運轉되는 事實을 깁히 注視치 아니하면 안될것이다 英國勞働黨內閣藏相이든 스노一덴氏의 英國議會에서 主張한 一節로써 이 關係를 說明할수 잇다 『經濟生活에 잇서 獲得된바 利益이 社會로 도라가지 안코 個人의 囊橐으로 드러간다 社會의 一切罪惡의 原因은 土地와 生產要具가 私有되야서 少數人에 依하야 이것이 管理되는 制度에 잇다』고 하엿다 오늘날 政治的鬪爭을 비롯하게된 日本無產政黨이 그만한 階級的 利益과 權利를 目標로 하고 出現될것은 贅議를 不須할 바이다 그러나 將次 實現될 普選案이 이와가튼 要求와 必要에 應할 만한것이 될는지 疑問도 업지 아니하거니와 한편으로는 日本의 無產階級이 한갓 政權을 엇는데 依하야 議會主義 改良主義로 變化할는지도 또한 알수업는 것이다 이에 吾人은 이번 普通選擧案의 實施로 말미아마 政治의 民主化라는 것을 부질업시 깃버하지 아니하는 者이다

獨佛條約諒解成立 兩國全權委員間에

(『나웬』無線十六日發帝通經由) 羅馬特報에 依하면 目下羅馬에서 折衷中인 獨、佛通商條約全權委員間에는 重要한 모든 問題에 就하야 完全한 諒解가 成立되얏다더라

『스』氏大命拜受疑問

(伯林十七日發) 『스트레제만』博士는 歸還할 豫定인데 『에벨트』大統領은 直히 同博士에게 新政府組織을 命하리라 期待되나 그러나 同博士의 承諾은 疑問이더라

콤파스氏後任選擧

(『나웬』無線十六日發帝通經由) 過日逝去한 『콤파스』氏의 後任으로 『겜스、단칸』氏는 亞米利加勞働總同盟會長에 選擧되얏더라

海軍根據地擴張은 國防政策이라 指摘 英海相쌔리지만氏演說

(倫敦十六日發) 英國海軍大臣 『쌔릿지맨』氏는 其演說中 新嘉坡海軍根據地의 擴張은 侵畧的 政策을 意味하는것이라는 說을 否定하고 日本及米國의 二大友邦은 今에 太平洋에 在한지라 英國은 右二大友邦과의 友誼는 이를 保持할 事를 希望한다 明言하고 日本又는 米國의 政治家도 新嘉坡海軍根據地擴張으로써 侵畧的 意味로 思推치 아니하리라하야 右는 畢竟 我國防政策에 依한것으로 此는 爲主히 英國海軍의 能率을 增함을 必要로 한다 指摘하얏더라

獨前國務大臣 服役中赦免

(쏠드無線十六日發) 『카푸』氏의 『포로지』陰謀事件에 關連하야 五個年의 懲役宣告를 受한 獨逸前國務大臣 『야곤야고뿌』氏는 赦免을 受하얏더라

알콜取締會議 一月中再開

(제네바十六日發) 國際聯盟主催 『알콜』取締會議는 一月十日外지 休會하얏다가 同月에 更히 再開하고 太平洋沿岸의 吸飮用阿片의 生產을 減少할 事를 右會議에서 論議할터이라하며 米國의 要求에 關하야 審議를 繼續할터이라더라

제네바議定書와 英首相의言明

(나웬無線十六日發帝通經由) 英國首相 『볼드윈』氏는 下院에서 『제네바』議定書에 關하야 말하되 政府는 同議定書를 議會에 提出하야 批准을 求하기 前에 爲先 自治領의 意嚮을 定하고 更히 亞米利加政府의 態度도 聽取하겟다 하얏더라

모롯고紛糾事件 反動惹起期待

(쏠드無線十六日發) 佛國各新聞은 西班牙의 『모롯고』紛糾事件에 關한 記事를 揭하야 『단지一르』에서 反動이 惹起되리라 豫期하는 中이며 『마탄』紙의 報道에 依하면 『모롯고』國王 『아누엘크림』氏는

巨頭會議召集意嚮 最高調停役兼裁決機關으로

(北京十六日發) 某要路人의 談에 依하면 段祺瑞氏는 軍事善後會議及國民會議外에 元老會議와 類似한 巨頭會議를 召集할 意嚮이라는데 右巨頭會議는 前記兩會議에서 議決키 難한 境遇에 此의 調停役兼裁決者가 될만한者를 選擇할 意嚮인듯한바 人員은 孫文、段祺瑞、張作霖、盧永祥、馮玉祥、唐繼堯等 六名이라더라

韓國鈞氏 江蘇督軍就任

(東京電) 當局着電=江蘇督軍韓國鈞氏는 十五日 齊燮元氏로부터 事務引渡를 受하고 督軍에 就任하얏는데 十四日以來 蘇浙戰爭의 負傷兵이 救恤金을 要求하야 不穩한 態度를 示함으로 不得已 救恤金을 내이엿스나 一部에는 支拂치 아니한 곳이 잇슴으로 此等負傷兵은 南京市外에서 掠奪을 恣行하는 中이다 그러나 大事에는 至치 아니하얏스며 各商店은 午後六時以後는 閉店하얏더라

學生代表의 强硬行動과 文相의 畏懾

(東京電) 軍事敎育反對運動을 試하야 極力目的達成에 努力中인 各大學專門學校學生의 聯盟은 當局의 意嚮을 聽取함과 共히 聯盟의 意嚮을 陳述키 爲하야 先日來數回에 亘하야 文相에게 面會를 求하얏스나 언제던지 拒絶되얏고 十七日에도 聯盟代表三十名이 午前十時頃 文部省에 出頭하야 文相에게 面會를 要求하얏스나 依然히 拒絶된바 맛나기外지 기다리겟다고 學生團은 大臣室압 出入口에서 [illegible] 又不動함으로 憤氣에 싸인 文相은 窓門을 안으로 잠근다 椅子를 整頓하는 等으로 對峙하얏더라

金屬業者會合

(巴里十七日發) 英、佛、白、伊、埃、『체크슬로바키야』等의 金屬業者代表는 會合에서 歐洲產鐵의 市價와 其生產을 統一하는 製鐵聯合組合組織의 件을 討議하얏는데 이는 佛、獨條約豫備交涉에서 試한 同樣의 交涉과는 別個의 것이더라

米國農林收穫 前年보다增收

(華盛頓十六日發) 米國農商務省發表에 依하면 本年度中의 米國農林收穫物價格은 九十四億七千九百九十二萬弗로 前年及前前年보다도 增加를 示하엿더라

佛公債應募額 四十九億突破

(쏠드無線十六日發) 佛國新公債應募額은 旣히 四十九億三千六百法에 達하얏더라

兩宗敎徒 聯合決議

(쏠드無線十六日發) 『크리미야』地方의 『모하멧트』敎徒及僧侶는 『아젤바이지안』及高加索의 回回敎僧侶並敎徒와 聯合하야 勞農露國外交委員 『치체린』氏에게 決議文을 提出하얏더라

露飛行家抗議 被殺同業者를爲하야

(莫斯科十六日發) 勞農露國飛行家數名은 世界各國飛行家에게 『에스토니아』政府가 過般爭亂의 際에 勞働家와 避難하기를 拒絶한 飛行家數名을 銃殺하얏슴에 對하야 抗議書를 懇請하얏더라

貴族院改革案 議會上程決定

(東京電) 政府는 五十議會에 貴族院制度改正을 上程하기로 決心한 結果 十七日午後三時 急遽히 調査委員會를 開하고 材料의 整理及意見을 纂集한 後 十八日閣議前에 正式委員會를 開하고 若槻、濱田、江木、塚本等委員도 參加하야 正式決定을 하야 閣議에 報告하기로 하얏더라

官紀肅正嚴達 機密의漏洩로

(東京電) 加藤首相은 近來 官界의 機密이 頻頻히 外界에 漏洩됨에 就하야 十六日 文書로써 各方面에 內訓하야 『近時官紀가 紊亂하야 官界의 機密이 頻頻히 漏洩됨은 不可하니 伊後에는 嚴重히 此를 警戒하라』고 官紀振肅을 嚴達하얏더라

外省의第三整理 公、大使級에

(東京電) 外務省第三次整理는 主히 在外公使館에 及할 方針으로 公使數中 明年三月外지에 整理될것은 瑞口、羅馬尼亞、淸水秘書、矢田瑞西、脇澤西班牙等인 네大使級中 林英國、落合伊國、田付伯刺西爾等도 早晩廢止될터이나 命令은 아직 發치 아니하얏더라

對議會策協議 政友幹部會에서

(東京電) 政友本黨幹部는 十七日 幹部會를 開하고 五十議會의 對策에 就하야 協議하얏더라

旅大存續決定

(東京電) 某樞府顧問官談=兒玉長官은 十七日 樞府委員會에 對하야 無條件으로 旅大를 存續하기로 決定한 旨를 報告하얏는데 從하야 探鑛冶金科도 廢止되지 안코 다만 人數에서 削減키로 되얏다 云云

有望한 普明學校 兩敎員의熱誠勸誘

慶北迎日郡 滌項面 斗湖洞 私立普明學校에서는 敎員 金鵬碩、鄭蘭述 兩氏가 日曜日마다 學父兄을 訪問하고 學校와 家庭에 連絡을 取하야 學校의 未來維持策으로 一層 樹立하기 爲하야 學校後援會를 組織하고 모든 善後策을 講究하는 中인데 同學校는 未久에 크게 發展되리라더라(浦項)

一喜一憂의 巨濟蹴球界

近來 慶南巨濟島 各地에서는 少年學生들의 蹴球熱이 膨脹하야 體育界를 놀내며 可觀할만한 成績도 잇서서 매우 欣喜한 바이나 그 反面에 少年들이 此에만 專力하고 所業을 等閑히 하며 더구나 敎員과 學生들이 敎授와 復習에 怠慢하는 等 不祥事가 種種 發生함으로 學父兄들은 勿論 一般社會에서도 크게 憂慮하는 中이라더라(巨濟)

安康青年復興 幹部諸氏의活動으로

慶北慶州郡 安康에서는 距今 五年에 靑年會를 組織하엿든바 中年에 維持困難으로 實로 悲運에 빠젓더니 今春以來로 會長 黃奉周氏外 重要幹部와 地方有志諸氏가 苦心한 結果 多額의 基金을 募集하야 當地 舊面事務所用建物을 買入하야 會館으로 定하고 復興策에 苦心하야 會長及幹部諸氏는 同會의 將來發展을 爲하야 活動하는 中이라더라(浦項)

蔚山署衛生宣傳

蔚山警察署에서는 管內各處에 蠅驅除、便所改造及下水等 衛生施設上 徹底한 改良을 實行키 爲하는 同時 民에게 大大的으로 宣傳하기 爲하야 管內 各駐在所에 照會하야 實行에 注意하라 하엿다더라(蔚山)

釜山西部發展 十二日에協議會

釜山西部發展期成同盟會에서는 去十二日午後一時부터 釜山府營共同食堂에서 協議會를 開催하고 西部發展策에 對하야 여러가지 協議가 有하얏나더라(釜山)

釜山學校評議會 釜山

釜山學校評議員會에서는 十七日午後一時부터 府廳會議室에서 戶別割等級銓衡에 對한 件을 附議하리라더라(釜山)

釜山名刺交換 釜山府

釜山府廳과 釜山商業會議所發起로 例年과 如히 來一月一日을 期하야 名刺交換會를 第一公立小學校에서 開催한다더라(釜山)

釜山府總代會 釜山府

釜山府 各町村總代會를 今月十六日午後一時부터 釜山府廳會議室에서 開催하고 道廳移轉問題及其他 必要事項을 討議하엿다고(釜山)

年賀郵便區分練習

釜山郵便局에서는 去十一日부터 年賀郵便特別取扱 하기 爲하야 區分練習을 開始하엿는바 本年에는 臨時事務員十五名 學生三十五名을 雇入하야 臨時事務員十五名은 十八日부터 學生은 二十七日부터 實務에 從事케한다더라(釜山)

勸農組合에서 勞働學院經營

全南務安郡 安佐面 新村里에서는 今年七月分부터 當地勸農組合의 主催로 同會館에서 勞働學院을 設立하고 勞働者 多數를 募集하야 普通程度로 敎授하는바 經費는 一切 同組合에서 支出하고 敎員은 當地 靑年 金基源、金浩先、金昌植、安必淳 諸氏가 無報酬로 熱心敎授하는 中인데 現在 生徒數는 晝學生이 男女 二十餘名이오 夜學生은 男女 七十餘名에 達하야 成績이 極히 良好하다더라(木浦)

群山米의 近日輸出旺盛 十五日間에二十餘萬石

去十月一日부터 本月十五日外지 群山港에서 輸出한 新米는 二十七萬二千四百二十石에 達하얏고 또 近日來로 在庫米數가 二萬一千叺의 增加를 示하얏다더라(群山)

青年會主催로 農產物品評會 其他學藝會도잇다

永同靑年會의 主催와 時代、東亞、朝鮮三新聞支局後援下에 來年一月四、五兩日間 永同靑年會館에서 農產物品評會를 開催한다는바 四日에는 審査가 有하고 五日에는 同成績發表及賞品授與式이 有하리라는데 同開期中에는 積山學院의 學藝會와 慈善市도 有하야 一層 觀衆의 興味를 도으려니와 여러가지 餘興도 잇슬터인즉 當時에 大盛況을 이룰것은 넉넉히 豫測할수가 잇다더라(永同)

洪城驛繁昌 最近忠南

京南線 洪城驛에는 每日 乘客이 二百五十餘名과 荷物運搬가 三百餘噸에 達하는데 前에 보지 못하던 繁昌을 이룬다더라(洪城)

江景局年賀袋配付

忠南江景郵便局에서는 年賀郵便物取扱에 對하야 他局과 如히 特別取扱하기로 年賀郵便物袋를 各戶에 配付하엿는데 或配付에 漏落된 사람은 直接郵便局에 交涉하라 하며 取扱期限은 去十五日부터 來二十九日外지라더라(江景)

全北事務規例改定

全羅北道에서는 去十五日附로 分事務規例를 左와 如히 改定하얏다더라

一、府에는 課를 廢하고 係로 定할 것

一、郡에는 庶務、財務로 分하야 課를 係로 改定하고 勸業課는 廢하야 庶務課로 合할것(群山)

江景聖誕紀念 忠南江景

江景黃山禮拜堂에서는 來二十五日

啄木鳥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 以內 要 住所氏名 附記

閉門의悲運에 싸진 兩講習所의現狀을듯고

◇우리朝鮮도 己未運動以來로 文化向上의 必要를 切實히 늣기게된 結果 各地에 學術講習所等의 補充 敎育機關이 만히 設立되는 中 우리 咸平地方도 그 가운데 하나이엿다 그리하야 多數한 私設學術講習所가 設立되엿다 그러나 거의 全部가 龍頭蛇尾가 되야 閉門의 弔鍾을 울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니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안될 悲運에 싸지고 말엇다 그런데 이 原因은 物質的 關係도 잇겟지만 向學熱이 식어가는 關係도 업지 아니할것이다 그러나 富豪金東所氏가 經營하는 柳川講習所와 富豪金炳寅氏가 經營하는 多岩講習所와 以外에 個所가 殘命을 維持하는 現狀이엿다

◇柳川、多岩兩講習所는 富豪家의 經營임으로 勿論 物質上의 苦痛은 別로히 업스나 今年 災害로 缺席生이 夥多할뿐 아니라 柳川講習所는 郡當局의 設立認可 不應으로 말미암아 不得已 不遠間 閉門하지 아니하면 안될 悲運에 일으럿다 한다 아! 이얼마나 悲憤한 消息인가? 進步는 커녕 도리여 退步라니! 學父兄은 應當 먹을것이 업드라도 무엇무엇 理由는 만흘것이다 그러나 남과 가티 義務敎育은 못식힐지언정 晩學으로 배우고자 하는 그들 學生의 意氣를 생각하여 보십시요! 如何한 事情이 잇드래도 그를 排除하고 배우려는 그 意氣를 挫折치 말기를 바랍니다.

◇勿論 子弟에게 멕일것이 업서 또는 手에 물여 먹기 爲하야 中途에 廢케함 學父兄은 現代에는 업슬줄노 안다 그러나 먹기 爲하야 가르킨다는것 보다도 알리기 爲하야 가르킨다는 생각을 가저야 된다!

◇그리고 郡當局者들 사람으로 알어야 할것을 알지 못함이 얼마나 큰 不幸일가. 學父兄들은 여긔에 깁히 留意할바이다 우리도 사람이니 사람인 以上에는 남과 가티 사람노릇을 하라면 무엇보다도 經濟的으로 自由가 업는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父兄으로서의 義務다、그리고 郡當局者에게 뭇노니 認可手續에 不應하는 其理由가 公立普通學校에 入學生이 적은 外닭이라 한다

◇萬一 이것이 果然이라 하면 年齡超過로 公立普通學校에 入學치 못한 者는 어데 가서 배울것인가? 維持하고 못하기는 經營者에게 맛기고 배우는 데를 要求하기는 學生의 自由에 맛길것이 아닌가 그러한 自由까지 束縛할 必要는 업는것이다? 公立普通學校에 障害가 잇다는것 만으로는 正當한 理由라고 認定할수 업는 것이다 그러므로 郡當局者들은 再三 考慮할지어다! 그리하야 우리 咸平地方 敎育界에 一大曙光을 주기를 바란다(咸平一靑年)

前途有望한 塢川學校 幹部들의活動 學父兄의後援

定州郡 馬山面 東倉洞에 잇는 私立塢川學校는 元來 理學者 養成所이든 存道齋를 革新하야 塢川學校로 改稱하고 以來 十七星霜에 數多한 事件과 地方凶作으로 維持가 困難하야 幾多才士를 養成하여 오든바 已未以後로 至今은 前校長 盧耆造、盧龍熙 兩氏는 熱誠을 다하야 活動한 結果 洞中 所有인 沃畓 財產 壹千圓을 寄附를 밧고 校舍 十五間을 新築하야 男女 二百名 學生을 收容 敎授하는 中 今秋에 새로 校長에 就任한 盧寬根氏는 더욱 奮鬪하야 아직外지 그 學校가 指定學校로 認可되지 못함을 遺憾으로 생각하고 去七日에 學父兄會를 開하고 校長의 懇曲한 說明과 學生代表 盧權熙君의 『學父兄님네들에게 바랍니다』라는 含淚의 哀訴가 有하야 卽席에서 該校 維持會를 組織하고 會員諸氏의 左記와 如한 寄附金이 有하얏다더라

盧寬根五百圓、梁在奕五百圓、盧德滿百圓、安成福五十圓、金文鉉二十五圓、盧龍熙二百五十圓、盧德善二十五圓、金周治二十五圓、白樂哉五圓、李陽薰拾圓、盧應泰五圓、盧明吉拾圓、盧德在拾圓、崔善化五圓、盧德新拾圓、朴世傑五圓、李鍾一五圓、白樂亨五圓、朴光表五圓、洪德俊五圓、洪應泰拾圓、洪善泰五圓、崔允一五圓、安襄道五圓、盧德根拾圓(定州)

饑饉同情還至

平壤饑饉救濟會에

方今 開催中인 平壤南山峴敎會復興會에서는 饑饉同胞를 爲하야 去十四日에 左와 가티 約二百圓의 義捐金을 모아서 平壤饑饉救濟會로 보내기로 하엿다더라

崔龍勳二十圓▲文約翰 尹滋敬 朴昌九 各十圓▲安洙益 鄭濟元 金三洪 禹致績 崔貞一女史 崔成九 五圓▲池鎔殷 崔重楨 崔成九 金善道女史 各三圓

平壤에 各校冬期休業

最早가十九日 最遲가廿六日

平壤府內에 잇는 各學校의 冬期放學日字는 如左하다더라

崇實大學		十二月十九日
崇實中學校	同	十九日
崇賢女學校	同	二十三日
崇義女學校	同	二十三日
正義女高普校	同	二十日
正進女學校	同	二十日
光成高普校	同	二十二日
光成小學校	同	二十二日
平高普校	同	二十日
鍾路普校	同	二十日
上需普校	同	二十五日
明倫女普校	同	二十五日
南山女普校	同	二十五日
平女高普校	同	二十五日
崇仁學校	同	二十三日
崇德學校	同	二十四日
若松普校	同	二十五日
平高附屬普校	同	二十日
東明學館	同	二十日
神學校	同	十九日
箕明學校	同	二十日
聖母女學校	同	二十日
鳳鳴學院	同	二十六日
廣德學校	同	二十日
溪林學校	同	十九日
鼎義幼稚園	同	十九日

(平壤)

平壤青年 理事會를開催 振興策繼續講究

平壤靑年會에서는 去十五日下午七時에 同會理事會를 時代日報平南支局內에 開하고 會의 振興策과 會館建築等에 對하야 協議하엿다더라(平壤)

博川邑에 兩處女子夜學 모다成績이良好

博川邑內 耶蘇敎會及普校에서는 客月十七日부터 女子夜學을 開催한바 敎會先生 金貞夏、朴信元、金明鎭、李愛敬女史와 普校先生으로 良淡女史는 無報酬로 熱心敎授하는 중 敎會에 學生六十餘名과 普校에 五十餘名에 達하야 成績이 頗히 良好하다더라(博川)

信川溫泉에 浴客이繁昌

輕鐵에서는車賃二割引

黃海道 信川溫泉은 各色病에 有效할뿐만 아니라 閑靜에도 適好하다 함은 이미 世上에 다 周知하는 바이어니와 該溫泉은 浴客이 逐年 增加하야 至今은 來人去客이 相當한바 冬期休暇가 切迫하야 京城、仁川、開城、新義州、兼二浦、鎭南浦等地 及其他附近各地로부터 治病或은 閑遊하러 오는 사람이 漸次 複雜하여짐으로 信川開經鐵에서는 特히 此期에 際하야 往復賃金을 二割引 한다더라(信川)

漁業者褒賞式

鎭南浦府勸業課에서

鎭南浦府勸業課에서는 漁業奬勵의 一策으로 去十五日午後一時에 同府樓上에서 漁業者褒賞式을 擧行하고 鎭南浦市內에 居住하는 漁業者는 勿論 外地漁業者로 鎭南浦魚市場에서 販賣한 成績에 依하야 優良한 者에게는 其成績에 依하야 一等으로부터 五等外지 各各 褒賞狀及賞品을 授與하엿다는데 受賞者는 大槪 日人이라더라(鎭南浦)

青龍에 仁興講習

晝夜學生이百餘名

德川郡 靑龍面 大化洞에서는 아즉外지 敎育機關이 업슴을 一般이 遺憾으로 生覺하던바 當地 耶蘇敎會有志諸氏의 發起로 去七月부터 仁興講習所를 設立하고 道路에 彷徨하던 兒童 五六十名을 收容敎授한다는데 去十一月부터는 男子를 爲하야 夜學을 同講習所內에 設立하고 學生을 募集한 結果 現今 七十餘名에 達하야 熱心工夫하는 中이라더라(德川)

平南養苗本數

下附보다出願이倍數

平安南道에서는 來年度에 各郡에 配付할 地方費養苗本數는 總數五十五萬三千本인데 今日外지 下附願을 提出한 苗木總本數는 大同、江西兩郡을 除外하고도 九十七萬本에 達하야 下附數가 出願數의 半分에 不過함으로 到底히 그 要求全部를 應키 難한 狀態에 잇다는데 그 中에서 出願數가 最多한 것은 平壤栗 四十一萬七千本이오 그 다음이 赤松二十二萬五千本이며 그리고 植栽者의 減少인바 赤松은 近來 松蟲發生으로 因하야 被害가 太甚한 外 栽植에 稍稍 栽者가 激減하야 下附豫定數 十萬五千本에 對하야 出願數는 겨우 七萬五千本에 不過하는 狀態임으로 今後로는 此等傾向을 보아 苗木選擇에 注意하야 一層 繁殖을 圖謀할 方針이라더라(平壤)

江厚間自働車 十七日부터開通

江界邑內 日人 小田豐治郞은 江界 厚昌間에 乘合自働車營業을 하고자 當局에 申請中이던바 數日前에 當局으로부터 許可가 되엿슴으로 今月十七日부터 運轉을 開始할터이라는데 따라서 郵便物도 自働車로 運搬한다더라(江界)

信曜靑年會를 沙口靑年會로 臨時總會에서改定

咸鏡北道 富寧郡 富居面 沙口洞에 잇는 信曜靑年會에서는 去十一月十三日午後三時에 臨時總會를 開하고 近者 同會會員이 中心이 되야 새로 建築한 沙口義塾에 對하야 協議한 後 다시 同會名을 沙口洞에 依하야 沙口靑年會로 改稱하자는 提案이 잇서 滿場一致로 可決하고 다시 沙口義塾落成式에 關한 모든 議決事項을 朝鮮靑年總同盟에 報告하기로 하고 同七時에 閉會하얏다더라(富寧)

沙口義塾落成 盛大한式을擧行

咸鏡北道 富寧郡 富居面 沙口洞에 잇는 沙口靑年會에서 義捐한 二百圓과 辛良德氏의 百圓을 基礎로 하고 一般洞民의 熱烈한 後援으로 沙口義塾을 新築하엿는데 同義塾은 沙口普通學校에 年齡不足으로 入學치 못하는 兒童과 年齡超過로 入學치 못하는 靑年을 爲하야 敎授하며 新築落成式을 盛大히 擧行하얏더라(富寧)

信貞女學校

元山女子敎育界의曙光

府內 山祭洞 南監理敎會女宣敎部에서 經營하는 樓氏女學校는 今夏에 敎育部에서 高等普通學校에 昇格하기로 決議되엿슴으로 同校附屬普通科는 別校로 移轉할 必要가 生하야 本年五月부터 建築工事에 着手하야 爾來 半個年을 經한 今日에 三層洋屋이 全部落成되엿슴으로 新年開學初에 新校로 普通科及附屬幼稚園을 移轉收容할터인바 校名은 信貞女學校이라더라(元山)

咸南의 敎員試驗合格者

八名中朝鮮人六名

今年十一月에 咸南道에서 施行한 小學校及普通學校敎員試驗에 合格한 第二種合格者 八名과 同成績優良證明書를 受한者 十一名及第三種試驗에 成績優良의 證明書를 受한者는 九名인바 其氏名은 左와 如하다더라

▲第二種試驗合格者

咸興郡咸興面 韓溶煥

同 金孝源

甲山郡普惠面 李鉉麒

永興郡洪仁面 趙成龍

文川郡都內面 朴起福

咸興郡咸興面 蔡熙

德源郡府內面 宮崎一惠

元山府泉町 赤尾麗子

▲第二種試驗에成績優良證明書를受한者

朝鮮語及漢文 德川 李齊賢

同 咸興 徐尙祿

同 新興 柳

同 江川 金

同 永興 申

手工 咸興 吳

同 元山 李

同 咸興 黑田須磨

同 北靑 濱邦계이

同 元山 山口靜子

歷史地理圖畫手工 元山 小川小次郎

▲第三種試驗에成績佳良證明書를受한者

手工 永興 張沆龍

同 同 朴世勳

同 元山 金兌英

同 安邊 南相基

同 元山 金松竹

朝鮮語及漢文 端川 許錫胤

同 同 李彰永

音樂 定平 吳禹淑

地理 咸興 裵良鳳 (元山)

北青高普期成 理事會長制로

臨時總會에서變更

北靑高普期成會에서는 臨時總會를 開하고 各面代表者 五十餘名과 其他 會員數百名이 出席하야 募金方法을 討議하고 理事制를 會長制로 變更하고 任員을 左와 如히 選定한 後 閉會하얏다더라 會長 全致國、會計 趙尙元、書記 趙鳳儀(北靑)

佛敎布敎堂에 女子夜學開催

洪蒲龍氏의厚意로

江陵錦町 佛敎布敎堂 布敎師 洪蒲龍氏는 本郡女子界를 爲하야 普通學校를 卒業치 못한 女子와 및 普通學校卒業程度의 女子 七十餘名을 募集하야 去十一月十日부터 그 程度에 該當한 科目으로 午後七時부터 同十時外지 敎員 金尙一、龍昌熙 兩氏가 熱心敎授中인데 成績이 매우 良好하다더라(江陵)

村婦人의 學路에

江陵錦町 美監理敎會에서는 本月五日부터 午後七時로부터 同十時外지 同敎會堂內에 女子夜學을 開催하얏는데 學生은 四十餘名에 達하얏고 先生은 金在彰、李元馥 兩氏가 熱心敎授中인데 村에 잇는 女子들도 漸次入學 志願者가 遝至한다더라(江陵)

北青聯合靑年近況

北靑靑年聯合會에서는 會體變更과 年齡制限을 斷行後 新任執行委員會를 開하고 常務委員 三人을 選定하얏는데 庶務에 李春均, 會計에 金裕伯, 調査에 徐學得 氏가 被選되고 左記事業을 實行하기로 決定하야 方今 準備中이라더라

一、各地方靑年團體를 通絡하기 爲하야 講演隊와 幻燈隊를 派遣 巡回할것

一、勤學講習을 新設하고 李貞烈氏를 各學講師로 招聘할것

一、中央에 音樂會를 開하고 安州洋樂隊를 請邀할것(北靑)

最近元山旅客狀況

元山驛의 昨今旅客狀況을 聞하면 乘降者 共히 每月平均 五百二三十名이오 乘客收入은 一日千二百圓假量으로 相當한 成績을 示하는 바 今後 歲末 切近期를 따라 乘降客은 一層 增加할터이오 歲暮贈答品의 搬送도 또한 激增되리라더라

元山滿鐵工事狀況

元山滿鐵工事所 現在의 新線工事는 陽化驛으로 俗厚停車場外지가 四十里의 十二工區工事인데 其間의 難工事는 陽化附近에 大隧道가 有하야 其延長이 二千四百十二尺인바 十一月二十三日에 其洞坑이 貫通되엿스나 來春四月中에는 隧道全部가 完成할터이며 其他同工區의 土工은 大體完成되엿고 殘所는 橋梁一個所인바 郞大困川橋의 四十尺橋板五連의 工事로 明年六月에는 竣工할터이오 또한 此以北의 十三區工事는 着手期도 未定이며 同事務所 現在工事로는 永興、元山間의 旺場과 新七驛間에 잇는 金津江橋의 假橋를 本橋로 架設할터인바 橋板은 七十尺의 것 二十을 連하야 全長이 千五百八十六尺七寸으로 基礎工事는 全部完了하엿고 남은것은 橋脚工事임으로 本年中에는 大部分을 完成하고 明年六月에는 全部竣工되리라더라(元山)

元山海底線不通

多忙期인此際에큰困難

元山松江間 海底電線은 去十五日午前五時頃부터 故障이 生하야 通信이 不能함으로 日本行電報는 全部 京城局을 經하야 通信하는바 數日間에 復舊되지 못하면 年末多忙期인 此際에 大困難을 當할터이라더라(元山)

元山에잉크工場

吳基元氏가設立

元山府 美港洞 一六五番地 吳基元氏는 東亞『잉크』工場을 設立하고 數月前부터 朝鮮人의 手로 『잉크』를 製造販賣하는바 品質이 良好하고 價格이 低廉하야 顧客에게 만흔 歡迎을 밧는다는데 이와 가티 元山에 小規模일망정 製造工業이 漸漸 이러나는 것은 우리의 將來를 爲하야 慶賀할 일이라고 하겟다더라(元山)

十六日元山物價

今月十六日元山市場物價는 左와 如하다더라

品名	單位	上品	中品	下品
白米	一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찹쌀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피쌀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粟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折米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豆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豆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麥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黍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蕎麥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明太	二十尾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鷄卵	一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生牛牡	一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牝	一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豚在來種	一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豚改良種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鷄在來種	一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鷄改良種	一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朝米

仁川期米 第二報 十二月十七日

後場軟弱

今前場阪地止價三十九圓六十八錢의 情報와 共히 三十四圓七十八錢에 止場한 當市場은 後場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九圓六十六錢인 二丁反落을 據하고 三十四圓七十九錢에 場을 始한 後 阪地三節六十九錢外지 十丁을 返戾하엿다가 阪地五節六十六錢으로 六十三錢에 場을 止함을 伴하고 結局 七十六錢에 小軟히 場을 止하엿는데 高低의 差는 十三丁이며 阪仁의 鞘는 四百八十七丁이더라

大阪場況 十七日後場

今後場 阪地場況은 各地共히 當中不變으로 三木及地場筋의 賣와 兵庫筋別派及『마바라』의 買로 九圓六十六錢에 場을 始한 後 地場筋의 利喰買로 六十九錢外지 跳返하엿스나 此邊에는 商內稀薄하야 六十六錢으로 反落하야 結局 活氣가 無히 六十三錢에 場을 止하엿다고

◇各地止價◇

	十七日後止	昨止比較
大阪	三九、六三錢	三六錢低
東京	四〇、八二錢	二四錢低
兵庫	三八、七五錢	四二錢低
下關	三八、八九錢	四二錢低
桑名後夕	四〇、一二錢	二七錢低
名古屋	三九、一八錢	三〇錢低
金澤	三九、七三錢	三〇錢低
熊本	三八、八五錢	二七錢低
仁川	三四、七六錢	二八錢低

◇阪仁氣配◇

大阪 三十九圓六十四錢五錢

仁川 三十四圓七十五錢六錢

◇各限俵合◇ 十七日後場

賣方 買方

當限 (計一、八〇〇石)

中限 (計九、一〇〇石)

先限 (計四五、〇〇〇石)

謹告

十二月十八日附(十七日夕刊) 本報第一千五百六十一號는 記事中 當局의 忌諱에 抵觸되야 發賣禁止의 處分을 當하얏기로 該記事만을 削除하고 號外로 發行하얏기 玆에 謹告

朝鮮日報社

今夜부터 公會堂으로

오후일곱시부터무선뎐화와활동사진등을 입장에는입장권을반드시가지고오시오

無線電話公開放送變更

무선뎐화방송공개시험의뎨일일이비상한 성황으로 마추엇슴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뎨일일의 성적을보건대 입장희망자가너무만허회장의 정리가 곤난한外에 종용히무선뎐화를듯기가 어려웁고 또하로에 세차례의개회가엇는닭으로 교대가촉박하야 회장밧게모힌이와 회장안에모힌이의 출입교대가 곤난할뿐아니라 오후의시간에는 무선뎐화는소리가는것이아니라 디구상의 어느곳으로든지 공중으로전하야 오는것임으로 다른곳에서 보내고밧는무선뎐신이나무선뎐화가 잇슬째에는 방해가되야 소리가잘들리지아니하는데 마츰룡산(龍山)무선뎐신국과일본과 중국등의 무선뎐신국과무선뎐신을 교환하는 시간임으로 본사의 무선뎐화는 간간방해를밧게되는일이잇슴으로 무선뎐신에방해를밧지아니할 시간을 리용할수잇고 겸하야 회장을 정숙히정돈하야 렬심으로연구코저하는인사의편의도도모하고저회장을변경하야 저녁에리용할수잇는회장으로가장다수한 사람을 수용할장소로 경성공회당(京城公會堂)으로 뎡하고 입장자에게 약간의제한을부치기로 하얏슴니다 즉하로 세차례의개회를두차례로고치어 한차례는이미결뎡된학생의단톄관람으로하고한차례는공개하기로변경하얏슴니다

必要한無料入場券

금일밤에는입장권이필요 입장권드리는방법과시간

금십팔일의공개는오후칠시부터 행할터인데 회장의 정리를위하야 특별히 입장권을 발행하게되얏슴니다 금일오후다섯시반부터여섯시반까지 한시간사이에 남대문통 일뎡목 이십삼번디(소광교동북편모퉁이)조선일보경성판매소에서 희망하시는이사에게 입장권 일천장을 난호아 드릴터인데 시간안이라도 일천장을 다분배하면중지할것이며 입장권은 물론무료올시다

그리하야 금입장권을 가지고오후일곱시까지 경성공회당에도착하시는 이사에한하야 입장하시게하고 그이외에는 유감이나마부득이거절할수밧게업스며

讀者와學生 우대와주의

본사독자를 우대하는 의미로작일본보란외에 박여든 독자입장권은 명십구일오후일곱시 경성공회당으로 가지고 오시면무료로입장하시게할터인데 이날로 또한회장에 제한이 잇슴으로 먼저 도착하시는 일천명 이외에는 입장을 거절할수밧게 업시되얏스며 이독자 입장권은 명일에만쓰고 금일저녁에는 통용치아니함니다 이와가티시각이 방으로변경되얏슴으로 낫에 사무가잇는인사로도구경하실편의를 엇게되얏스며 무선뎐화의 청취도 우에말한바와가티 권일보다더욱조흘것이올시다 학생을위하야는 무론십팔십구 량일에도따로히 뎍당한시간을보아개회할터이나 이미발표한바와가티구경오는친날본사와상의하야두고 또한학교선생에게인솔된단톄가아니면 입장을거절하겟슴니다

天來의留聲器聲

만장의청중우잠시동안침묵 육군무뎐으로다소간또장애

無線電話放送初日의午後

데이회학생들의 듯는것이 씃나자문밧길거리에 갓득히 서서기다리든일반시민 여러분을 위하야데삼회의 공개시험을 시작하니째는 오후네시나 되야여섯시예뎡보다한시간 동안이나 느졋다 위선본사리사백관수(白寬洙)씨가고정뎐화를 동하야개회사를한후즉시『신비의괴작』이라는 무선뎐화에 관한활동사진 영사가잇섯고계속하야 무선뎐화방송시험이잇섯는데 고성유성긔가현곡조들려오매 만장한청중은 정이에놋기는듯키 잠잠하얏섯는데 역시룡산 육군무선뎐신소의 뎐회관계로 또과갓지못하야다섯시경에산회하얏더라

全州에 鐵工組合創立

야학부도설치할터

전주(全州)각텰공장(鐵工場)직공이 단결의목뎍으로 지난십오일하오한시경에 당디고사뎡(高砂町)텬도교당(天道敎堂) 안에 일백여명이 모히여서 텰공조합창립회(鐵工組合創立會)를개최하고 이십칠됴의 규약통과와 간부선거를 마친후에 위선 야학부(夜學部)를설치하기로결뎡하고 래빈측으로부터박태화(朴泰華)송령설(宋寧燮)량씨의 축사가잇서 대성황으로 폐회하얏는데선거된 간부의 씨명은아래와갓다더라

理事長金兩鉉、理事金得山、朴寮興、金永澤、李錫奉、朴潤禮、金興鐵、姜甲房、金承根、宋行鍋、梁珍玉、朱翔玉、朱蘇漆、姜有深、陳達兆、李圭漢、(전주)

◇무선뎐화—홍성후씨『바이올린』보내는광경

「쎄ㅡ토벤」紀念 名曲大演奏會

청년회관에서

금야칠시에거행

독일악성『쎄토ㅡ벤』의탄생을긔념하기위하야 연악회(硏樂會)주최로 금십팔일밤일곱시부터 종로청년회관에서 세계명곡대연주회(世界名曲大演奏會)를개최한다는데 이번에는 특별히경성안에잇는 일류음악가제씨의 지난일년동안에 연주하던 곡됴중에서 가장만히 환영을밧은것과 가장자신잇게 잘하든것으로 예술뎍가티가잇는 명곡만을 가려서 연주할터임으로 실로이번 음악회는 조선음악계의 지난일년동안의 총결산(總決算)이라고할만하다는데 당야에는 입장하는 아동들에게『쎄ㅡ토쎈』의사진한장식을 난호아주는외에 번호를밧은 순서지를주엇다가 휴식시간에 제비를뽑아서 책이나잡지나 혹은 일력(日曆)가튼것을 긔념품으로 준다하며 입장료는 이원、일원、오십전의세가지인바 입장뎡원은사백명에한한다더라

漣川兩校 紛糾繼續

학부형측에서는 군당국처치주목

련천(漣川)공립보통학교학생일동이 교장을배척한다함은 이미 본보에보도하얏거니와문뎨가컴컴확대되야필경동맹 휴학까지 되얏다는데 그자세한내용을 듯건대동교사오학년생도일동이특별히 수모자가업시모다 자발뎍으로교장불신임안을협의한결과동맹휴학하기로 결뎡하고 아즉 비밀에부치고발표하지아니한여덟가지됴건을 작뎡하야 군수에게뎨출하고자할지음에 지난 십사일에 군속(郡屬)에게발각되야 신경이과민한 군청으로부터군수이하사무원들이모이여 근처에잇는 사오학년생도들을불러가지고수모자가누구냐고 별별수단을 다사용하얏스나 종시수모자가 발혀되지아니함으로 다만권유한뒤에 물리여보내후 생도들의거주하는 동리를일일히 됴사하야 등교하기를 권유하고 또학교에모히여

교장에게 대한일을밤이 깁도록 강구하얏는데 그이튼날에 군수가사오학년만 따로모힌 장소에어른과 생도에게 대하야 동맹휴학을한다고 교장을보낼리도업고 동맹휴학을 아니한다고 교장을물릴리가업스니 너희들이여권히 등교하되만일 등교하지아니하는생도에게는상당한처벌이잇겟다고 권유겸협박의말을하얏는바 일반학생측에서는 한사람에게라도처벌이잇는때에는

더욱맹렬 히동맹하겟다고반항이 강경하다는데 또전에보도한바와가티 동군관할 마뎐공보(麻田公普)의 맹휴사건도 점점강경하야일반학부형들은다만군텽으로부터원만한처치가잇기만바란다더라(련천)

二重橋前에怪漢

일본인으로변명한조선인

십륙일밤 아홉시경 궁성이중교(宮城二重橋) 압너른 마당에서 이십칠팔세의 청년한명이 고민하는것을순시중의경관이발견하야 즉시 경시텽으로 다려다가 응급수당을 베풀고자하얏더니 본인은『쥐잡는약』을 먹엇다고하나 의심스러운뎜이잇서서엄중히취됴한결과 그자는요전번 참모본부내에잠입하야 수상한 행동을하얏든송본삼랑(松本三郞)(三○)이라일컷는 조선사람장헌중(張憲仲)인것이 판명되얏는데무슨짓을 하랴다가 경관을맛나서 쇠병을하얏는지 생활난으로 자살을한다고 떠드러볼작뎡으로그리하얏는지 목하엄중취조중이라더라(동경뎐보)

楊承雨의公判

또다시연긔

평북신의주 디방법원에서 사형언도를 밧고평양복심법원에 공소한 의용단장양승우(義勇團長楊承雨)의이심공판은그사이수차연긔를 거듭하여온것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지난 십륙일에 열릴공판도사정에의하야 또다시무긔연긔되엿다더라(평양)

坎井勞働夜學

창립일주년긔념식 성황으로마치엇다

김포군군내면감뎡리(金浦郡郡內面坎井里)에서는 로동자의지식을보급시키기위하야 리병륙(李炳六)、리철희(李喆熙)、문선봉(文仙奉)제씨의 발긔로야학회를 설립하고 작년십일월부터 당디우져서원(牛渚書院)안에서 다수한로동자를 모집하야 강사문두현(文斗鉉)리운남(李雲男)량씨가무료로열심교수한바 성적이 매우량호하던중본월십일일오후팔시부터 동회당내에서 창립일주년긔념식을거행하얏는데문선봉(文仙奉)씨의사회로 성적의 순서를따라 상품수여식을마친후래빈측으로 리교승(李敎承)、리철헌(李哲憲)량씨의의미깁흔축사로대성황리에서폐회하얏다더라(김포)

可憐한未亡人

일반의동정으로 고향갈려비까지

선천군동면인곡동(宣川郡東面仁谷洞)에본적을두고 신의주진사뎡(眞砂町)오번디에거주하는 김태익(金泰益)(四三)은하로사오십전식벌어근근히지내오다가설상가상으로병에걸리어신음하는중그의안해홍억선(洪億善)은오직남편의병을위하야지성으로간호하엿스나마츰내지난십일일에 세상을떠낫는데수중에돈한푼이 업고사고무친한그의안해는장비도할수업서오즉어린자식삼남매를엽헤안치고 시톄를붓들고통곡만하든중 마츰그의 고향으로부터온김항준(金恒俊)씨가이를보고 자긔의친구를 방문하고 혹일원혹오십전식 동정금을 어더 장비와고향에 도라갈려비까지하야준바 가사항은 물론이어니와 일반은여러동정한인사의 동정심을 칭송한다더라(신의주)

갈가진老窃盜

수표뎡에서데포

십칠일오후세시경시내수표뎡(水標町)이십일번디김완종(金完鍾)의 집행랑방에는 나히약 륙십오륙세 가량 되어보히는 의관을 생긋이입은 로인 한명이 침입하야 의장속에 드러잇는 의복과화로를 절취하는것을그주인이 발견하고 곳문을 열라한즉 문이안으로 굿게잠겨잇슴으로 밝갈로문을차고 드러가서 그자를붓들라한즉 그자는 품속으로부터 칼을쎼내어 번득리고 곳본뎡경찰서에 고발하야 원지음에 주인이 마당에 너머 형사의손에 압송되엿다는데 아즉취됴를 시작지아니햇슴으로 그 성명은 발표치못한다더라

莞島金日面 救濟會의活動

각리에순강할터

전남완도군 금일면(全南莞島郡金日面)에서는 수백만의 동포가긔근에싸저 처처에서 류리개걸한다는 말을듯고 그대로잇는 것은량심에 붓그럽다하야 지난 달이십오일에유지의 발긔로금일긔근구제회(饑饉救濟會)를조직하고위원십일인을선뎡한후각방면에활동중순회강연대를조직하야각리에 순회할터이라는데 동회위원은 다음과 갓다더라

◇執行委員

李鍾南、金永杓、權敬萬、李暉雨、徐熏炫、徐碩煥、林弘基、方貞淳、朴南禎、徐相源、方完淳君等(완도)

市內太平通에서 拳銃馬賊逮捕

본뎡·동대문량서의협력으로 실탄가진 그의딸까지 데포해

륙혈포(六穴砲)가진중국마적단(中國馬賊團)이 시내에 잠입한 흔적이 잇슴으로 작십칠일오전부터서대문과 본뎡량서고등계(兩署高等係)원이 협력하야 대활동을개시하엿다함은 이미작지에보도하엿거니와 작일오후두시경에 시내태평통(太平通)부근에서륙혈포가진중국인(中國人)○○○과열네살가량된그의딸이 서대문서고등계원의손에검거되엿는데사실은절대비밀에부침으로아직발표할자유가업스나륙혈포는바로제가가지고잇고실탄(實彈)네개는 그딸되는 계집애가 몸에숨저가지고잇는것을 발견하엿기 때문에어린계집아이까지검거한것이라하며 이것을단서로하야 작일밤에도 동고등계원 총출동으로 모방면에활동을계속중이라더라

元山三戶全燒

원인은됴사중

지난십오일오후열두시경에원산중리일동(元山中里一洞) 오번디해안(海岸)나무가래에서불이 일어나서그이웃집김영희(金永熙)최군명(崔君明)서진록(徐鎭祿)세사람의집을전소하고 간신히진화하얏다는데 손해는 이천원가량이나된다하며발화원인은 방금됴사중이라더라(원산)

「스케트」와女子庭球

조선톄육회에서명년부터

조선톄육회(朝鮮體育會)에서는 그동안숙뎨중이든 겨울운동에유일한『스케트』대회(氷上競技大會)와 녀자운동의가장뎍합한녀자뎡구대회(女子庭球大會)를명년부터개최한다함은이미보도한바어니와요지음일긔는매우치워저서한강의어름도둑거운데는다섯치(寸)이상이나어럿스며 각학교나 가뎡『스케트맨』들은이로부터겨울방학을리용하야련습이 매우 성행하게되얏슴으로오는일월중순에는뎨일회전조선빙상경기대회『스케트』대회(第一回全朝鮮氷上競技大會)를크게열터이라는데 시일과긔타여러가지사항은추후에발표한다더라

大本敎의 所謂檄文은

교주무죄를운동

출구왕인삼랑(出口王仁三郞)의 공판은드되여 명년일월 십일부터 십륙일까지 대심원(大審院)에서열고 최후의 판결을나릴터임으로대본교(大本敎)전국의신도간에서는왕인의무죄를긔원할 계획이라는데 그중에도 동경우입약송뎡(東京牛込若松町)에잇는대본교의조직으로된 화심회(和心會)에서는「만일유죄가되면관헌이니하여선국신도에게대하야 대천생에대한 개관의유죄무죄는국가의흥망이니、세계의 존멸이니하야신도는일제히무죄를도모하자」는 동요령부득의언사인 격문(檄文)을 산포하엿는데 이격문을밧은 대본교관계서상회(瑞祥會)에서는거우조금씩 다른신자들에게 이와가튼 유혹을주는것은 유감이라하야 찬성치안는다더라

溫泉市民大會

溫泉株式會社가된후 목욕탕의차별이심하야 욕객의불평이극도겨양

地方發展上에打擊이라고

온양온천(溫陽溫泉)은조선의 명승디중 하나로 명성이놉흔곳임으로 일년에 오고가는손이수만명으로 계산하는 데이로부터 칠팔년전에 일본인에게 매도되야즉시 주식회사라는명의로 일본인이 권리를 잡게된후일본탕 조선탕 두곳을 따로만드러노코 가튼료금을 내여도 일본탕은불이좀더 더웁고

정결하게 꾸미엿슴으로 조선사람으로도 중류 이상이라고 할만한사람들은 그곳을희망하는터이나 조선옷만 입엇스면 물론표를 팔지아니하고아모리 추할지라도 일본옷이나 또는양복을 입엇스면 입욕식히는 한긔괴한 차별뎍수단을 씀으로 래왕하는손들의불평이 놉하오든중인데 지나간 십일십이 량일간에는 당디시민대회와 온천리발뎐을 도하는 양양회에서는온천

주식회사의무신한일에 대하야 수백명의 련서로도당국에진정서를 데출하기로 결의되얏다는데 내용을드른바에 의하면온천주식회사로 허가를 어들때에는 온천수를 발뎐식히기위하야조선인 공동숙사와 교통을 편의케 하기위하야 긔차시간새이로자동차를 시설하야 준다고 하야시민에 승락을어든 것인데 오늘까지 무신히잇스며 또조선탕이라는 보통탕욕권쌔리는

구월부터 삼월까지는볼이차서 폐지가되여잇고 이십전이나팔십전을 주고라야 목욕을 하게됨으로 매일목욕을 할사람도경제문데로 인하야 목욕을못한다는 비난이잇슴으로 이번에 온천리양양회에서 와시 민대회에서는 조선탕과일본탕의 차별을털폐하고 처음약됴대로 각항을시설케 하여달라는 의미로그와가티 진정서를 데출한것인데 만일도당국에 서도회신이 속히 오지아니하면 총독부 당국까지라도진정하고 적극뎍 태도를취할방침이라더라(아산)

永新校生徒 禁食으로饑饉救濟

로우회와교회에서도동감

각디의긔근동포의참상이날로심하야가는것을 따라긔근 구제회가곳곳에일어난다함은본보에두보도한바어니와 전북 전주군참례면(全州郡參禮面)사립영신학교(私立永新學校)에서는학생 륙십여명의 어린아이들이 긔근에싸진동포를구제하고자요사이가티치운날에 점심한쌔식을 먹지아니하고그것을푼푼이모아구제하겟다는

구든결심 으로지난달부터실행하야오든바이미모흔돈과쌀이적지안타하며금후에도계속하야 긔근구제회에 보낼예뎡이라는데 이소식을드른 참례야소교회(參禮耶蘇敎會)와참례로우회(參禮勞友會)에서도이에늣긴바가잇서 두단데의 련합으로구제회를 발긔하고 지난륙일오후륙시에동영신학교당에서긔근구제

강연회를 개최하고목사곽진근(郭塡根)씨의렬렬한강연이잇섯스며 그후에도계속할동뎡금이 오십여원에 달하얏스며 참례면은 금년한재에도 익옥수리(益沃水利)가잇서구할이상의수확이 잇섯슴으로 만흔동뎡금이모히겟는다더라(리리)

雜貨店化한 鐘路署

순사눈빼인 절도의장품

본보에루루히보도하여오든순사눈빼인효자동절도단십여명은이래취됴한결과다옥뎡(茶屋町)모잡화뎜두곳과종로(鍾路)삼뎡목모시계뎜한곳과종로일뎡목모만년필상회등 기타수삽개소의상뎜을떠려온 물품이 판명되어종로경찰서에는 시계、만년필이산가티싸허서일종의잡화상뎜을이루엇다는데귀다옥뎡잡화뎜두곳은그절도마진것으로인하야영업사지폐지하엿섯다더라

電車內窃盜

십일원을일어

수원군신풍리(水原郡新豐里) 김대석(金大石)(二○)이란 녀자는 십칠일오도두시삼십분경에뎐차를타고조선은행압흐로지나다가주머니속에잇든현금십일원사십전을일헛다더라

小兒慘死

얼음지치다가얼음이꺼저서

양주군 구리면방화리(楊州郡九里面放鶴里) 신행우(申行雨)의 동생아들신기식(申錤植)이라는당년 십이세된아이가 동군 공립보통학교(公普校)에 재학중인데 매일긔차로 통학하야오든바 지난 십오일 오전아홉시경에 긔차를 타고자 창동역(倉洞驛)으로 나왓는데 시간이 조금일러서 긔차가 오지아니함으로 그근처 산골못이라는 못에가서 얼음을 지치고 놀다가 돌연히얼음이꺼저 물속으로 빠젓는데 그엽헤서놀든 아이들이 엇지할줄몰으고 잇는중 이급보를들은 창동주재소(倉洞駐在所)순사가족시못으로가서 간신히 그아이를건저스나시간이 오래되얏슴으로 생명은구할 도리가 업섯다더라(양주)

落傷하야絕命

나무에서떠러저

고양군숭인면 석곶리(高陽郡崇仁面石串里) 최봉운(崔鳳云)(二二)은십륙일 정오경에 부근산림에잇는 나무우에서 떠러저서 고민하든중 그날오후에 마츰내 죽엇다더라

刺人致死

낫으로 쌍갑을다투다가 사람을죽이엇다

전남보성군 벌교면칠동리(全南寶城郡筏橋面七洞里) 양원수(楊元洙)(三八)는지난십일에동리양춘환(楊春煥)(三一)과밧닷말지기매매가격에 대하야 서로언쟁하다가양춘환은양원수의배를 낫으로찔러서사일만에죽엇다는데 피해당시에피해자의친족들은곳 본면주재소에가서 양원수가 취중에중상을당하얏다고말한바주재소에서는공의(公醫)와현장에출장됴사한결과 피해자의외편배가 세치가량 이나중상하야 대소장이삼분일이나 나왓슴으로 응급치료를 하고원인을무른즉그의 가족과친족들은 다말하기를 술을먹고와서 함부로쥬다가 낫에상하엿다고 하나 경관공의는밋지 안코십일일에 엄중히됴사한바 과연양춘환이가 상해한사실이 판명되얏스나 가해자를 데포코자 할터이나 어대로 종적을 감추엇다더라(벌교)

金敎師의誠意

경북영일군 포항면두호동(迎日郡浦項面斗湖洞) 사립보명학교(私立普明學校)는 창립한후로교원이 만히데임되얏는데 지난 사월에 흥해김룡석(興海金龍碩)씨를초빙하야 교수케하얏는바 동씨가 교편을잡은후로입학생이 축일증가하야 성적이매우 량호하다는데씨는일요일마다 학부형을 방문하고가뎡과학교의련락을취하야학생에게대한주의를 쓸러히한다는데부근인사는칭송이자자하다더라(포항)

小祥日에殺風景

망인의족형이 제상을부섯다

박천군가남면 령미동(博川郡嘉南面嶺美洞) 김용건(金用建)(三○)은본래가산이 유여하나 소생이라고는 딸사형데밧게업고 작년에 세상을리별한바 장령의 아달 김상희(金尙熙)(三三)를 양자로하고자한즉 중형김용묵(金用默)이가 자긔아들 재관(在寬)(九)을 양자하라고 머리를 흘리엇스나 용건의 가뎡에서는 우금것양자로생각지아니하고 지난유월일일 신사일제사에자긔장녀 김성녀(金姓女)(三二)로하야금 제사를 지내게하는중 재관의부모가와서 말하기를 양자재관이가 잇는데 엇지하야 딸로만제사를지내게하느냐하며차려노흔제상을모다부서바리며일대살풍경이 일어낫섯다는데 이소식을드른 남미주재소에서는즉시재관의 친부를 인치취됴중 이라더라(박천)

◇集會◇

▲배재크리스마스 시내 뎡동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普校)와 동교당(學堂)에서는 금십팔일 오전열한시반에 그학교 마당에서『크리스마스』축하식을 거행한다고

▲세부란스의전도 시내『세부란스』의학전문학교(醫專)안에잇는 긔독교청년회에서는 십구일오후 일곱시부터 남대문밧 례배당에서『크리스마스』축하식을 거행한다는데 학생들의자미잇는독창과 독주기타 여러가지 합창이잇스며『멍텅구리』등의 여흥도잇다고

휘파람

◇뎡동일번디 회춘의원(回春醫院)에서약갑을 아니낸다고 모자를빼앗다는사실을 과목한일이 잇섯다 ◇측자세한내용은 그들은그런일이 전연업는것은아니나 원장윤박사는 전연아지도 못하는일이라고 ▲그뿐아니라 그왓던병자가 몸에만 병이잇는것이아니라 거지꼴하는 병세가 심하여서 사무원이 미운생각으로 좀심히 말을하엿더니 ▲자긔할봉은 제쳐노코회장을내며 모자를 버서노코 갓다고한다 ▲그러나 모자버슨친구의 이마가버서지고 아니버서진것까지는 미처못보앗다고 ▲강화(江華)에서는 면면청년사이에 긔근구제를 목뎍하고 연극단을 조직하야가지고 순회를한다고 ▲그런데 그부단장은언제인가서울동모야시에서『발』로『발』장사를차서죽인 일로 면직된 권순사임모(任某)라든가▲사람을 발로차서 죽이지말고 긔근구제를 말지!

創作 젊은敎師 (二)

星海

여러선생들이 이와가티 모양을 내면낼사록 또는자긔의 인격이나 지식이 훌륭한것을 알부러뵈이면 뵈일사록 녀선생은 그들과는 교섭이 더욱 멀어가는듯하엿섯다 자긔네의 모든「모순」이 그녀선생에게 하등의 감격이나 호긔심을 열으키지못한 것을 알은그네들은 그때부터는 엇더한 반감을 가지게된듯하엿섯다 그리하야 녀선생이 업는 때에는 반드시 흉을보앗섯다 얼골빗이 희멀그니 눈고리가 처젓느니 입술이 얇실얇실하니 시집은 벌서간모양이니 아무것도 모르는모양이니하고 모든흉이란흉은 볼대로보앗다 마츰도 다른사람이 보지못한것을 자긔가 보아내인것이 자긔의 큰공적(功績)이나 다름업시 녀이는듯하엿섯다

녀선생도 여러다른선생의 자긔에게 대한태도가 엇더한것을 짐작함이든지 그녀선생에게서도 그들을 멸시하는시선(視線)이 갓금갓것다 멸시하는 시선을떠진뒤에는 반드시 엇더라형용하야 말할수업는 슬픔과고독을늣기는빗이 그의눈에나타낫섯다 K는 이것을 확실히알엇섯다

그리고 다른선생들을 쏘아보는시선과 K자신을 쏘아보는그것이 다른것을 알엇섯다 다른사람을 보는시선은 확실이 멸시하는것이엇고 K를바라보는 그것은 고독과 슬픔을 말하는 것이엇섯다 그래도 K는 이러한시선을 차별하여 생각함에마다 자긔자신도 다른사람과가튼 그러한태도가 그녀자에게 뵈이지나아니하엿슬가 스사로 주의하엿섯다 그리고 엇지하야 그녀자가 다른사람을 엇더한눈으로 대하는지또는 자긔를 엇더한시선으로 보는지 그것을주의할필요가 잇슬가하고 생각하여본일도잇섯다

이러한 생각을할때마다 식은땀이 등에서 나오는듯하엿다 웨? 그러한것을 주의하게되엿슬가? 이것을주의하여보는데에는 자긔자신에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자요구하는것이 반드시잇는까닭이다 그러라! 그녀자도 자긔가 늣기는고독과 가튼고독을 늣기는것을 이학교에 오든 그날부터 짐작하게된까닭이다 짐작한다는것보다도 녀자가단신으로 이와가티 풍속과 인정(人情)이 다른 궁벽한산골로 들어와서 이성에 주린남자가온데에서 불안한날을 보내게된 그의신상을 자긔가 너무나 동정한까닭이다 그래서 자긔는 그러케 일동일정을 주의하여본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는 그녀자도 생장한곳이 남쪽따뜻한 디방이란것을 정다웁게 생각한 까닭이엇다 이러한 의미밧게는 아모것도업다고 생각하엿섯다

날이 오래지내고얼굴이 서로 익어지매 녀선생은 학교일이나 여러가지교수에대한일을 다른 사람을 다고만두고 K에게 뭇게되엿섯다 교장에게 물어야상당할것도 K에게 물엇섯다 K는 엇더한때에는 녀선생을 대신하다십히교장에게 무엇을더러물은일이 잇섯섯다 이러할때마다 교장은 K를 이상스러운 얼굴로바라보며 대답하엿섯다 다른선생들은자긔에게 뭇기를 바라고 잇섯든것가티 일동의 질투(嫉妬)에 갓가운눈으로 K를 대하게되엿섯다 이것을 알아차린K는 한고소(苦笑)를 금치못하엿섯다 그러한늣는살이 쏘아오는 그가온데에서 시시로 변하는감정을 눌러가며 일하는 녀선생이 야말로 가엽다고 더욱 간절히 늣기엇섯다 그리하야 날이갈사록 녀선생에게 대한동정이 두터워젓섯다

하루는K가 몸이 좀불편하야교수를마치고바로일즉히자긔려관(旅館)으로도라왓섯다 도라오는 길에도여러가지공상에잠겻다 K는지금까지 죽엄에 대하야는 별로 그러케 깁히 생각해본일은 업섯스나 자긔의 몸이 이와가티 궁벽한산고을에 와서 외로히잇게되매 엇더한때에는 반드시 죽엄에 대한 일종의공포(恐怖)를 늣기게 되엿섯다 그리하야 오늘에도 일즉히 자긔려관으로 도라가면서 아즉 젊은몸으로 이와가티 궁벽한 산골에 왓다가 병으로 죽는다는것은 너무나 가석한일이라 그러케 마음업는일에 실은날만을 보내다가 그대로죽는것은 자긔가 이세상에 태여나온 가치(價値)가 업다고 생각하엿다 지금 몸이 더운것은 무슨큰병에 걸린 징조나아닌지 누구가 알수잇느냐? 혹은 장질부사(腸窒扶斯)! 폐염(肺炎)? 폐결핵(肺結核)의초긔(初期)? 그밧게이름모르는 내장(內臟)의질병(疾病)? 이와가티 열(熱)이 놉흔 병이란병을련상하면서 거럿섯다 그리고 만일 지금자긔의 몸이 이와가티 괴로운원인이 그러한병가운데의 하나라하면 자긔는 이와가티 의료긔관(醫療機關)이 불충분한 산골에서─더구나 객디에서 할수업시 외로운혼(魂)이 되리라고 생각하엿다 이와가튼 생각에집중하며 거러갈때에뒤에서『K선생님!』이라고부르는소리가낫섯다 이 소리는 K의 귀에익은녀자의소리엇섯다

入場無料

無線電話放送公開變更

朝鮮日報社主催=日華無線電信機製造所實演

◇十八、十九、兩日間(每日午後七時부터)

發信所 朝鮮日報社 (場所의狹隘로一般觀覽은謝絶但學校理科敎師의觀覽은無妨)

受信所 京城公會堂 (十八日은一般에公開 十九日은讀者에公開)

第一日의經驗에徵하야制限잇는會場에서는到底히無條件公開를行할수업슴으로會場을京城에서第一多人數를容할公會堂으로變更하고別도히入場券을發行하야十八日에는午後五時半부터六時半外지사이에本社京城販賣所(南大門通一丁目二十三番地小廣橋東北隅)에서希望者에게난호아드리고會場에는入場券持參하신이에게限하야入場하시게합니다 十九日에는昨日本報欄外에印刷한讀者優待券을持參하신人士先着一千人을限하야入場하시게함

放送無線電話 演說、聲樂、器樂等

外에 無線電話에關한講演、無線電話의原理를說明한 活動寫眞、高聲蓄音器、電話等最新發明의實演

祝朝鮮日報金浦支局發展

金浦郡陽村面 陽谷金融組合長 李運夏
同 理事 橋田小天莊
陽村面 姜一會
同 沈相勳
同陽谷駐在所 巡査部長 飯田忠五郎
金浦郡陽村面陽谷里 榎田淺之介
同九來里 李演煥
同陽谷里 李珪夏
同馬松里 洪鍾宣
同 沈宜春
同 沈相惠
同 大串面長 趙永萬
同 大串面 申大均
同 栗岩里 沈星澤
同 大陵里 金演哲
金浦郡大串面大碧里 金演昌
同 金演根
金浦郡月串面 職員一同
同 都下里 趙亨錫
金浦郡高村面 職員一同
同 陽東面 職員一同
陽川公立普通學校長 力武鹿太輔
金浦郡高村面台里 尹[illegible]